

관청은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할까?

- 영화 <휴먼 리소스> (Human Resource, 2025)

성은

태국 감독 나와폰 탐롱라따나릿의 영화 <휴먼 리소스>는 크게 소리치는 영화가 아니다. 그러나 침묵과 정적인 화면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모두가 알고도 외면해온 질문과 마주한다. “이 세계에, 아이를 낳아도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인간’인가, 아니면 그저 ‘자원’인가?”

영화는 임신 5주차라는 사실을 알게 된 대기업 인사팀 직원 프렌을 따라가며 여성, 몸, 노동, 사회, 계급, 가치 등 다양한 문제를 엮어간다. 우선, 인사관리라는 조직적 장치를 통해 오늘날 여성의 삶이 어떻게 자원으로 호명되고 규율되는가를 치밀하게 추적한다. 주인공 프렌은 임신 5주차를 맞은 대기업 인사담당자다. 이 설정은 하나의 명백한 모순을 품는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을 선발하는 노동자”인 동시에, “새로운 인적자원을 생산하는 몸”. 즉 프렌은 노동을 관리하는 인력이자, 노동을 낳는 재생산 장치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녀에게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고 말하지만, 곧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주문인지 확인하게 된다. 그녀의 일터는 위험을 관리한다는 명목 아래 인간을 숫자로 평가하고 분류하는 곳이다. 상사는 서류를 던지며 직원에게 폭력을 가하고, 프렌과 동료 텐은 불만을 삼키며 조직의 말단부에서 균열을 봉합한다.

준이라는 한 직원이 괴롭힘과 과로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무단으로 나갔다. 30일 이내 준을 대체할 직원을 뽑으라는 회사의 명령을 따라, 프렌은 면접을 진행한다. 신입 면접에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했으나 적응력이 떨어질 것 같은 인물은 탈락시키고, 낮은 보상과 열악한 조건에 불만을 품지 않을 거 같은, 말 그대로 ‘관리가능한’ 인물들이 선호된다. 면접 장면은 천천히 현실의 시간 속도를 따라 진행된다. 그럼으로써 한 사회가 어떤 인간을 필요로 하는지를 잔혹하게 드러낸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인간은 수명 짧은 소모품처럼 취급된다. 인사시스템은 언제나 교체할 수 있는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계다. 영화는 인사관리라는 체계가 어떻게 사람을 통제 대상인 리소스로 환원시키는

지를 날카롭게 포착한다.

이 비인간적 장치 속에서 프렌의 몸은 ‘재생산’이라는 또 다른 임무를 부여받는다. 임신에 대해 사회는 온갖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상은 그와 다르다. 무엇보다 회사는 효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태국에서 낙태가 합법인 기한은 12주. 선택까지 남은 시간은 그녀를 조급하게 만든다. 그녀는 남편 타메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숨긴다. 이 사회에서 여성의 몸과 미래는 여전히 ‘국가와 가족의 규범과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규제되기 때문이다. 낙태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좋은 엄마”라는 사회적 기대는 여성 스스로 자기 삶을 영위할 권리를 침식한다. 프렌은 일터에서는 ‘결근할 수 없는 조직의 부품’으로, 가정에서는 ‘미래 세대 생산자’로 규정된다.

불안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영화 속 방콕은 흡사 재난의 도시처럼 그려진다. 미세플라스틱, 홍기 난사, 무차별 폭력 등 온갖 흉흉한 뉴스가 거리를 메운다. 한편에는 범죄 예방을 명목으로 초슬림 방검복을 팔고 있다. “우리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외침이 일상의 소음처럼 깔린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 공포와 불안은 소비의 동력이 될 뿐이다. 미래가 점점 더 적대적이라면, 새 생명의 탄생은 ‘희망’이 아니라 ‘도박’처럼 느껴진다.

프렌의 남편 타메는 이 불안 속에서 계급적 우월감을 무기로 삼는다. 프렌과 타메는 겉보기엔 안정된 중산층이다. 그러나 타메는 자신의 계급 이동 사다리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감추며, 끊임없이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를 따라 행동하려고 한다. 일방통행을 무시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차로 치어버리는 폭력을 휘두르고, 자신이 만든 유착 관계를 활용해 모든 책임을 피하고 사건을 은폐한다. 그는 사회의 공정성을 주장하지만, 공정은 언제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만 작동한다. 타인의 고통을 딛고 올라서는 계급 감정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일상화되는지, 영화는 정확한 순간을 포착한다.

프렌 부부가 ‘국제학교’를 방문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핵심 장면 중 하나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남편 타메는 “우리 아이가 다닐 곳”이라며 국제학교를 둘러본다. 그러면서 아이의 인생 설계도를 아내에게 열거한다. 그러는 동안 프렌은 문득 묻는다.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할까?” 지식, 강인함, 건강, 저축, 품성… 그녀가 나열하는 목록을 얻기 위해선 얼마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 자신이 중산층임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 그러나 그 삶은 결코 화려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다. 그저 괜찮은 정도다. 그 정도를 바라는 것도 힘에 부친다.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는 회사를, 연대와 온기란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사회를 받아들이지 않고서



▲ 영화의 마지막인 세차장 씬. 사진: 부산국제영화제.

는 그마저도 이를 수 없다.

<휴먼 리소스>의 카메라는 이 질식할 듯한 사회 구조를 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다. 프렌의 얼굴을 측면에서 포착하는 샷이 반복되며, 감정의 외면과 내면 사이 간극을 부각한다. 여백과 정적, 단조로운 색과 리듬은 관객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 인물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그리고 나는?” 태국의 이야기가 한국 관객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저출생, 비정규 노동, 중산층 붕괴, 젠더 갈등, 위험과 재난 ... 차가운 스크린 속 프렌의 삶이 곧 우리의 일터와 거리, 교육, 가족의 풍경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결말을 거부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프렌은 기계식 세차를 받는 차 안에 묵묵히 앉아 있다. 그녀의 선택은 끝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이 모든 불안을 씻어내고 싶지만, 여전히 자본주의라는 이윤 기계의 리듬에 갇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멈춰있는 것처럼. 온기란 없는, 그렇다고 출구가 보이지도 않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아이를 데려오는 게 과연 잘한 일인지? 불안을 억누르며, 그저 하루를 버티면 다행인 걸까? 그러다 한 칸 더 올라가면 기뻐해야 하는 걸까? **알터**